

폐허 속에서 피어난 민초들의 삶

한영수 《삶》



· 오른쪽 술장수(1958, 동대문시장)
· 왼쪽 개구쟁이(1956, 공덕동)

민초들의 삶은 참으로 모질고도 강하다. 짓밟히고 몽개쳐도 어느 순간 불현듯이 일어나 새로운 삶의 싹을 틔운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간다'는 지극히 평범하고도 당연한 사실이 때로는 놀라운 모습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 사진집 《삶》(1987, 신태양사)은 6·25전쟁 직후 혹독한 삶의 시련기를 맞이한 민초들의 놀라운 생명력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모두 5부로 구성된 사진집은 먼저 전쟁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서울풍경이 등장한다. 총탄 자국이 성성한 건물, 끊어진 한강교,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상의용사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음울한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다. 멋스럽게 치장을 하고 거리로 나선 여인들과 청계천변 복개공사 현장은 새로운 미

래를 예견하고 있다. 삶을 개척하려는 모습은 시장에서도 엿볼 수 있다. 질화로를 곁에 두고 흰 옷가지를 수선하는 <노부부>와 한겨울 눈보라 속에서 찬겨리를 팔고 있는 <반찬장수들>에서 끈끈한 삶의 체취를 느낄 수 있다. 시장은 팽팽한 생존의 현장이지만 잠시 숨들릴 수 있는 공간이기도 했다. 한담을 나누고 있는 사람들과 짝짝이 신발을 펼쳐놓고 누워 있는 <신장수>에서는 짐짓 여유까지 느껴진다.

강변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들 역시 고달픈 삶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중랑천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 아낙네, 얼어붙은 한강에서 채빙을 하고 있는 어름장수에게서 당시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다. 이어지는 농어촌 풍경은 잠시나마 긴장감을 잊게 해준다. 추수를 하고 있는 노인과 햇살 가득

한 오징어 덕장 아래 아이를 엮고 있는 아낙네의 수줍은 듯한 미소는 한층 여유로 다가온다.

마지막 주인공은 전쟁의 가장 큰 피해자였던 아이들이다. 별이 세 개나 달린 모자를 쓰고 있는 <개구쟁이>의 얼굴에 현실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나 아이들은 아이들일 뿐이다. 화약놀이나 고무충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여전히 천진난만하다.

사진작가 한영수(65)는 《삶》을 통해 전쟁이 남긴 혹독한 생활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그러나 밝은 내일을 예견하려는 노력 또한 잊지 않고 있다. 현재 개인활동을 하고 있는 그는 사진집으로 《우리 강산》(1986, 열화당)을 펴내기도 했다.

— 오완진 기자

출판저널

통권 제229호 / 1998년 2월 5일 발행

발행인 — 정진숙
 편집인 — 전병석
 인쇄인 — 이일수
 편집위원 — 권영빈 김문화
 송상용 이중한
 편집주간 — 이승우
 편집장 — 김지원
 기자 — 마정미 오완진
 박천홍 이현주
 디자인 — 윤정자
 사진 — 한준호

업무부장 — 윤동호
 업무·광고 — 이희천 김유희
 김동필 전창환

(재)한국출판금고
 상임이사 — 최학수
 총무부장 — 이정수
 전화: 732-1434~5

등록 1987년 6월 9일-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출판저널: 110-190 서울 중로구
 시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3 FAX 722-1174
 하이텔: chulpan 천리안 book 732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출판저널》 정기구독 안내

매월 5일과 20일자로 발간되는 《출판저널》은 정기구독으로 받아 보시는 것이 빠르고 편리합니다. 본사의 지로용지로 1년치 구독료 40,000원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맥이나 사무실로 우송해드립니다. 본사의 지로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수협·축협 포함)의 A지로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하여 불입하거나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공급: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9, 716-5621~3



IMF시대의 저렴하고 실속있는 출판광고!
 빠르고 알찬 신간종합정보지 — 《출판저널》의
 광고지략으로 출판계 깊은 불황의 주름살을
 조금이나마 펴 드릴 것을 선언합니다!

광고문의 전화: 732-1433 팩스: 722-1174